

# 표준형 성인 암성 통증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암성 통증 어휘조사

천안 동면보건지소<sup>1</sup>,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sup>2</sup>, 보바스기념병원 내과<sup>3</sup>,  
안세병원 가정의학과<sup>4</sup>,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sup>5</sup>,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sup>6</sup>,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sup>7</sup>, 용인정신병원<sup>8</sup>  
장세권<sup>1</sup> · 최윤선<sup>2</sup> · 박진노<sup>3</sup> · 엄창환<sup>4</sup> · 이명아<sup>5</sup> · 송찬희<sup>6</sup> · 윤소영<sup>7</sup> · 이영희<sup>8</sup>

## Abstract

### Words in the Korean Language Used to describe Pain in Cancer Patients -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Cancer Pain Assessment Tool (K-CPAT) -

Se Kwon Jang, M.D.,<sup>1</sup>, Youn Seon Choi, M.D.,<sup>2</sup>, Jeanno Park, M.D.,<sup>3</sup>,  
Chang Hwan Yeom, M.D.,<sup>4</sup>, Myung Aha Lee, M.D.,<sup>5</sup>, Chan Hee Song M.D.,<sup>6</sup>,  
So Young Yoon, M.D.,<sup>7</sup>, and Young Hee Lee, M.D.<sup>8</sup>

<sup>1</sup>Dongmyun Health Center, Cheonan, <sup>2</sup>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up>3</sup>Bobath Memorial Hospital,  
<sup>4</sup>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Ahnsei Hospital,  
<sup>5</sup>Division of Onc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up>6</sup>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up>7</sup>Division of Onc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up>8</sup>Young In Mental Health Hospital

This paper addresses the minor differences in the description of pain in Korean language in order to develop a standardized cancer pain assessment tool for Korean adults, Korean Cancer Pain Assessment Tool. The subtle differences in the meaning of expressions used cannot be translated into English and therefore we omitted the English abstract.

## 서 론

통증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된

감각적, 정서적, 인지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으로[1] 암의 가장 흔한 증상 중의 하나이다[2, 3]. 암에 의한 통증은 일상생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나 가족으로 하여금 치료를 포기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4, 5], 적절한 통증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6, 7].

통증은 병태생리에 따라 통각수용성(nociceptive) 통증과 신경병증성(neuropathic) 통증으로 나누어 지

\* 본 연구는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와 (주)한국안센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책임저자: 최윤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길 97번지  
고려의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Tel : 02)818-6886, Fax : 02)837-0613  
E-mail : yunseon@korea.ac.kr

기도 하나[8] 체성 통증(somatic pain), 내장성 통증(visceral pain),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으로 흔히 나누어지며[9], 통증의 성격에 따라 치료제의 선택에도 차이가 있다[10]. 따라서 암환자의 통증을 평가함에 있어서 통증의 강도 뿐만 아니라 통증의 성격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통증은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 사람에 의해 잘 정의된다. 통증경험과 주관적 정보인 통증에 대한 환자의 표현은 통증상태의 가장 믿을만한 지표로 간주되어 왔으며[10], 통증의 평가에 있어서 환자가 선택한 말들이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다.

Melzack[1] 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통증의 어휘를 토대로 통증을 측정하는 McGill Pain Questionnaire를 만들었다. 또한 이은옥 등[12~14]은 McGill Pain Questionnaire를 근거로 한국적 통증표현 양상을 정리하여 국어통증척도(Korean Pain Rating Scale) 를 만들었다.

하지만 암환자의 통증 표현 양상을 조사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실제 우리나라 성인 암환자들이 암성통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조사하고 통증의 성격(somatic, visceral, neuropathic)에 따른 통증의 표현 어휘를 조사함으로써 암성 통증을 정확히 평가하여 효율적인 통증조절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 대상 및 방법

### 1. 대상

2002년 9월부터 11월 사이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6개 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혈액암은 제외) 40~60세 사이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의식이 명료하여 대화가 가능한 환자 75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 2. 방법

본 연구는 다 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각 기관

의 조사자는 3번 이상의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조사자가 직접 대상 환자를 면담하여 암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암환자가 표현하는 통증 어휘를 조사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는 환자의 성별, 나이, 최초 암 진단일, 암의 원발 부위와 현재까지 받은 치료의 종류를 보았고, 환자가 표현하는 통증 어휘 분석에서는 현재 및 24시간 중 가장 통증이 심했을 때의 통증 부위를 body chart에 표시하고, 그 때의 통증을 어휘로 표현토록 하였다. 한편 여러 통증이 혼재해 있을 때는 가장 아픈 통증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 1) 통증부위표시

통증부위의 표시는 Brief Pain Inventory (Short Form)[15]와 McGill Pain Questionnaire[1]에서 사용한 body image를 사용하였다(Fig. 1)

#### 2) 암성 통증 어휘의 분석

다기관을 조사하는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부위의 성격을 전문가적 식견에 근거하여 체성 통증(somatic pain), 내장성 통증(visceral pain),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통증어휘 분석을 위해서는 전문가들(통증전문 의사 1인,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1인, 국문학자 1인, 통증어휘 전문 교수 1인)과 7차례의 자문회의를 가졌으며 성인용 암성 통증 평가도구를 위한 통증 성격에 따른 최종 통증 어휘의 선정은 실무위원회를 거쳐 각각 5개씩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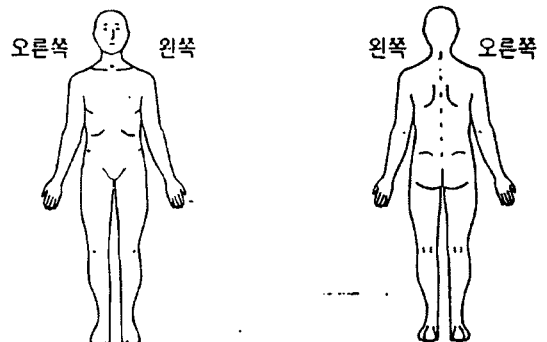


Fig. 1. 통증부위표시(Body Chart).

Table 1.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N=75명)

특성	환자 수(%)
나이(세)	57.3 (SD=12.8)
성별(명)	
남	40 (53.3)
여	35 (46.7)
진단명 (원발부위)	
위	17 (22.7)
췌장	4 ( 5.3)
간	16 (21.3)
유방	2 ( 2.7)
대장 및 직장	9 (12.0)
폐	15 (20.0)
자궁	1 ( 1.3)
방광	1 ( 1.3)
난소	3 ( 4.0)
두경부	6 ( 8.0)
미상	1 ( 1.3)
받았던 치료	
수술	8 (10.7)
항암화학요법	15 (20.0)
방사선치료	4 ( 5.3)
수술 + 항암화학요법	7 ( 9.3)
항암화학요법 + 방사선치료	9 (12.0)
수술 + 방사선치료	2 ( 2.7)
수술 + 항암화학요법 + 방사선치료	8 (10.7)
없음	22 (29.3)

결 과

1. 인구 통계학적 측면

대상자는 총 75명으로 남자 40명(53.3%), 여자 35명(46.7%)이었다. 평균 연령은 57.3±12.8세이었다. 위암이 17명(22.7%)로 가장 많았고 다른 원발 부위는 간(21.3%), 폐(20.0%) 순이었다. 치료방법은 항암요법만 받은 경우가 15명(20.0%)로 가장 많았고, 항암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가 9명(12.0%) 순이었다 (Table 1).

2. 압성 통증 표현 어휘분석

대상자 75명의 통증 표현에 사용되어진 어휘들을 추출하였고, 그 중 통증표현이 한테 묶어진 상태로 진술된 경우에는 그 통증표현의 어휘들을 각기 분리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통증부위를 지적하거나 얼굴 표정이나 행동 반응을 표현한 어휘는 삭제하였고, 통증의 감정적, 평가적 표현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그렇게 해서 총 183개의 어휘로 추출되었고(중복 포함) 추출된 통증표현양상은 매우 다양하여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 하에 표준화하였다(Table 2).

Table 2. 압환자가 표현한 통증 어휘들과 표준화된 어휘들

원래 표현	표준화	원래 표현	표준화	원래 표현	표준화
걸린다	걸리다	부서지듯 아프다	부서지는 듯하다	쓰리다	쓰리다
걸린다	걸리다	뻐개지는 것 같다	뻐개지는 듯하다	쓰리다	쓰리다
걸리다	걸리다	뼈근하다	뼈근하다	쓰리다	쓰리다
걸리다	걸리다	뼈근하다	뼈근하다	쓰리다	쓰리다
끓어지는 것 같다	끓어지는 듯하다	뼈근하다	뼈근하다	쓰리다	쓰리다
끓어지듯이 아프다	끓어지는 듯하다	뼈근하다	뼈근하다	쓰리다	쓰리다
가슴이 답답하다	답답하다	뼈근하다	뼈근하다	애트린다	애트린다
가슴이 답답하다	답답하다	뼈근하다	뼈근하다	얼얼하다	얼얼하다
답답하다	답답하다	뼈근하다	뼈근하다	얼얼하다	얼얼하다
답답하다	답답하다	뼈근하다	뼈근하다	얼얼하다	얼얼하다
답답하다	답답하다	뼈근하다	뼈근하다	애린다	애리다
답답하다	답답하다	뼈근하다	뼈근하다	애린다	애리다
답답하다	답답하다	뻐친다	뻐치다	애린다	애리다
답답하다	답답하다	살살 아프다	살살 아프다	애린다	애리다
답답하다	답답하다	시리다	시리다	애린다	애리다
속이 답답하다	답답하다	시리다	시리다	애리다	애리다

Table 2. 암환자가 표현한 통증 어휘들과 표준화된 어휘들(계속)

원래 표현	표준화	원래 표현	표준화	원래 표현	표준화
거북하다	거북하다	시리다	시리다	우리하게 아프다	우리하다
보글보글 끓는다	보글보글 끓는다	시리다	시리다	우리하다	우리하다
보글보글 끓는다	보글보글 끓는다	시리다	시리다	우리하다	우리하다
둔하다	둔하다	시린듯하다	시리다	우리하다	우리하다
둔하다	둔하다	시큰시큰 쑤신다	쑤시다	은근이 아프다	은근하게 아프다
둔하다	둔하다	시큰시큰 쑤신다	쑤시다	지긋이 아프다	지긋이 아프다
주먹에 맞은 듯이 둔하게 아프다	둔하다	쑤시다	쑤시다	지긋이 아프다	지긋이 아프다
뒤틀리듯이 아프다	뒤틀리다	쑤시다	쑤시다	저리다	저리다
뒤틀린다	뒤틀리다	쑤시다	쑤시다	저리다	저리다
뒤틀린다	뒤틀리다	쑤시다	쑤시다	저린다	저리다
뒤틀린다	뒤틀리다	쑤시다	쑤시다	띠로 두르는 듯하다	조이는 듯하다
따갑다	따갑다	쑤시다	쑤시다	압박감	조이는 듯하다
따갑다	따갑다	쑤시다	쑤시다	잡아 뜯는듯한 통증	잡아뜯다
따갑다	따갑다	쑤시다	쑤시다	꺾어뜯는것 같다	꺾어뜯다
따갑다	따갑다	쑤시다	쑤시다	꺾어짜는듯 하다	꺾어짜는 듯하다
따금거리다	따끔거리다	쑤시다	쑤시다	꺾어짜는 듯이 아프다	꺾어짜는듯하다
따끔거리다	따끔거리다	쑤시다	쑤시다	누르는 느낌	짓누르다
따끔따끔하다	따끔거리다	쑤시다	쑤시다	누르는 느낌	짓누르다
땡긴다	땡기다	쑤시다	쑤시다	누르는 듯 하다	짓누르다
땡기듯 아프다	땡기다	쑤신다	쑤시다	찌릿찌릿하다	찌릿찌릿하다
땡긴다	땡기다	쑤신다	쑤시다	찌릿찌릿하다	찌릿찌릿하다
땡긴다	땡기다	쑤신다	쑤시다	피부만 닿아도 아프다	피부만 닿아도 아프다
땡긴다	땡기다	쑤신다	쑤시다	예리한 것으로 찌르는 것 같다	찌르다
땡긴다	땡기다	쑤신다	쑤시다	찌르는 느낌	찌르다
땡긴다	땡기다	쑤신다	쑤시다	찌르는 느낌	찌르다
잡아 당기는 것 같다	잡아당기다	쑤신다	쑤시다	찌르듯하다	찌르다
잡아당기는 듯 하다	잡아당기다	쑤신다	쑤시다	찌른다	찌르다
뜨겁다	뜨겁다	쑤신다	쑤시다	짜지듯이 아프다	짜지는 듯하다
뜨끔뜨끔아프다	뜨끔뜨끔하다	쑤신다	쑤시다	찢어지는 것 같다	찢어지는 듯하다
뜨끔뜨끔아프다	뜨끔뜨끔하다	쑤신다	쑤시다	찢어지는 느낌	찢어지는 듯하다
뜨끔뜨끔아프다	뜨끔뜨끔하다	욱신욱신 쑤시다	쑤시다	찢어지는 느낌	찢어지는 듯하다
뜨끔뜨끔아프다	뜨끔뜨끔하다	욱신욱신 쑤신다	쑤시다	채찍으로 후리는 것 같다	채찍으로 후리는 듯하다
떡떡하다	떡떡하다	지끈지끈아프다	지끈지끈하다	채찍으로 후리는 것 같다	채찍으로 후리는 듯하다
무지근하게 아프다	목지근하다	쿵쿵쑤시다	쑤시다	에이는 것 같다	에이는 듯하다
무지특하다	목지특하다	쿵쿵 쑤신다	쑤시다	칼로 도려내는 것 같다	칼로 도려내는 듯하다
목지근하다	목지근하다	쿵쿵 쑤신다	쑤시다	터지는 것 같다	터지는 듯하다
목지근하다	목지근하다	쿵쿵거리다	쿵쿵거리다	터지는듯한 팽만감	터지는 듯하다
목직하다	목직하다	쿵쿵쑤시다	쑤시다	톡쏘이는듯하다	쏘는 듯하다
목직하다	목직하다	쿵쿵쑤시다	쑤시다	팽창한듯 하다	팽창하는 듯하다
목직하다	목직하다	쿵쿵쑤시다	쑤시다	고추가루 뿌려놓은 듯하다	화끈거리다
꼬챙이로 쑤시는 것 같다	바늘로 쑤시듯하다	쿵쿵쑤시다	쑤시다	고추가루 뿌려놓은듯	하다화끈거리다
바늘로 쑤시는 듯하다	바늘로 쑤시듯하다	쿵쿵쑤시다	쑤시다	고춧가루 부려놓것같다	화끈거리다
바늘로 찌르듯이 쿵쿵 쑤시다	바늘로 쑤시듯하다	쿵쿵쑤시다	쑤시다	고춧가루 부려놓것같다	화끈거리다
부서지는 느낌	부서지는 듯하다	쿵쿵쑤시다	쑤시다	화끈거리다	화끈거리다
부서지는 느낌	부서지는 듯하다	쓰리다	쓰리다	화끈거리다	화끈거리다

① 환자의 표현을 가능한 한 그대로 존중한다.

널리 쓰는 비표준어는 그대로 둔다.

② 잉여적인 표현 정도성을 나타내는 표현은 가급적 생략한다.

위의 원칙 하에 183개 어휘를 52종류의 어휘로 표준화하였다.

③ 통증 표현은 ‘-하다/-다’형을 원칙으로 한다.

통증의 성격에 따라 표현된 어휘들을 보면, 체성 통

④ 표준어로 어휘화를 하되,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중의 경우 ‘쑤시다’가 14회로 가장 많았고, ‘결리다’

‘끊어지는 듯하다’, ‘답답하다’, ‘뜨끔뜨끔하다’, ‘목지근하다’, ‘빠근하다’, ‘우리하다’, ‘지긋이 아프다’, ‘찢어지는 듯하다’, ‘채찍으로 후리는 듯하다’가 각각 2회로 그 다음 순이었다(Table 3). 내장성 통증의 경우는 ‘쑤시다’가 11회로 가장 많았고, ‘답답하다’, ‘빠근하다’가 8회였으며, ‘쓰리다’가 7회 ‘애리다’가 5회, ‘뒤틀리다’가 4회, ‘둔하다’, ‘목적하다’, ‘짓누르다’가 3회로 그 뒤를 이었다(Table 4). 신경병성 통증은 ‘쑤시다’가 13회로 가장 많았고, ‘땡기다’, ‘시리다’, ‘화끈거리다’가 5회로 그 뒤를 이었으며, ‘따갑다’가 4회, ‘저리다’, ‘찌르다’가 3회로 그 뒤를 이었다(Table 5).

3. 통증의 성격에 따른 암성 통증 어휘 분석

Table 6과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성 통증의 표현에만 사용된 어휘들로는 ‘걸리다’ 를 포함하여 10

Table 3. 체성 통증

표준화된 어휘들	빈도
걸리다	2
끊어지는 듯하다	2
답답하다	2
둔하다	1
뜨끔뜨끔하다	2
먹먹하다	1
목지근하다	2
바늘로 쑤시듯하다	1
부서지는 듯하다	1
빠개지는 듯하다	1
빠근하다	2
쏘는 듯하다	1
쑤시다	14
우리하다	2
잡아뜰다	1
지긋이 아프다	2
지끈지끈하다	1
찌르다	1
찢어지는 듯하다	2
채찍으로 후리는 듯하다	2
쿵쿵거리다	1
합계	44

개로 이 중 ‘걸리다’, ‘끊어지는 듯하다’, ‘지긋이 아프다’, ‘채찍으로 후리는 듯하다’이 2회, ‘먹먹하다’, ‘빠개지는 듯하다’, ‘쏘는 듯하다’, ‘잡아 뜰다’, ‘지끈지끈하다’, ‘쿵쿵거리다’ 이 1회 사용되었다.

또, 내장성 통증의 표현에만 사용된 어휘들로는 ‘거북하다’를 포함하여 14개로, 이 중 ‘쓰리다’가 7회, ‘뒤틀리다’가 4회, ‘목적하다’, ‘짓누르다’가 3회, ‘걸리다’,

Table 4. 내장성 통증

표준화된 어휘들	빈도
거북하다	1
걸리다	2
답답하다	8
둔하다	3
뒤틀리다	4
따끔거리다	1
땡기다	2
뜨끔뜨끔하다	2
목적하다	3
바늘로 쑤시듯하다	2
보글보글 끊는다	2
부서지는 듯하다	2
빠근하다	8
살살 아프다	1
시리다	1
쑤시다	11
쓰리다	7
애리다	5
애틀리다	1
얼얼하다	2
우리하다	1
은근하게 아프다	1
잡아당기다	2
조이는 듯하다	1
꺾어짜는 듯하다	2
짓누르다	3
찌르다	1
찌릿찌릿하다	1
터지는 듯하다	2
팽창하는 듯하다	1
화끈거리다	1
합계	84

Table 5. 신경병증성 통증

표준화된 어휘들	빈도
따갑다	4
따끔거리다	2
뻥기다	5
뜨겁다	1
목지근하다	2
빨치다	1
시리다	5
쑤시다	13
애리다	1
얼얼하다	1
에이는 듯하다	1
우리하다	1
저리다	3
조이는 듯하다	1
쥐어뜯다	1
짜지는 듯하다	1
찌르다	3
찌릿찌릿하다	1
찢어지는 듯하다	1
칼로 도려내는 듯하다	1
피부만 닿아도 아프다	1
화끈거리다	5
합계	84

‘보글보글 끓는다’, ‘잡아 당기다’, ‘쥐어짜는 듯하다’, ‘터지는 듯하다’가 2회, ‘거북하다’, ‘살살 아프다’, ‘애트리다’, ‘은근하게 아프다’, ‘팽창하는 듯하다’가 1회 사용되었다.

신경병성 통증의 표현에만 사용된 어휘들로는 ‘따갑다’를 포함하여 9개로, 이 중 ‘따갑다’가 4회, ‘저리다’가 3회, ‘뜨겁다’, ‘빨치다’, ‘에이는 듯하다’, ‘쥐어뜯다’, ‘짜지는 듯하다’, ‘칼로 도려내는 듯하다’, ‘피부만 닿아도 아프다’가 1회 사용되었다.

‘답답하다’, ‘둔하다’, ‘뜨끔뜨끔하다’, ‘빠근하다’, ‘바늘로 쑤시는 듯하다’, ‘부서지는 듯하다’는 체성 통증과 내장성 통증의 표현에 모두 나타났고, ‘찢어지는 듯하다’, ‘목지근하다’는 체성 통증과 신경병증성 통증의 표현에, ‘따끔거리다’, ‘뻥기다’, ‘시리다’, ‘애리다’, ‘얼얼

Table 6. 통증의 성격에 따른 암성 통증 어휘 분석

표현 어휘	체성통증	내장성 통증	신경병성 통증
거북하다	0	1	0
애리다	0	5	1
걸리다	0	2	0
애트리다	0	1	0
결리다	2	0	0
얼얼하다	0	2	1
끓어지는 듯하다	2	0	0
에이는 듯하다	0	0	1
답답하다	2	8	0
우리하다	2	1	1
둔하다	1	3	0
은근하게 아프다	0	1	0
뒤틀리다	0	4	0
잡아당기다	0	2	0
따갑다	0	0	4
잡아뜯다	1	0	0
따끔거리다	0	1	2
저리다	0	0	3
뻥기다	0	2	5
조이는 듯하다	0	1	1
뜨겁다	0	0	1
쥐어뜯다	0	0	1
뜨끔뜨끔하다	2	2	0
쥐어짜는 듯하다	0	2	0
먹먹하다	1	0	0
지긋이 아프다	2	0	0
목지근하다	2	0	2
지끈지끈하다	1	0	0
목적하다	0	3	0
짓누르다	0	3	0
바늘로 쑤시듯하다	1	2	0
짜지는 듯하다	0	0	1
보글보글 끓는다	0	2	0
찌르다	1	1	3
부서지는 듯하다	1	2	0
찌릿찌릿하다	0	1	1
빠개지는 듯하다	1	0	0
찢어지는 듯하다	2	0	1
빠근하다	2	8	0
체적으로 후리는 듯하다	2	0	0
빨치다	0	0	1
칼로 도려내는 듯하다	0	0	1
살살 아프다	0	1	0
쿵쿵거리다	1	0	0
시리다	0	1	5
터지는 듯하다	0	2	0
쑤시다	14	11	13
팽창하는 듯하다	0	1	0
쏘는 듯하다	1	0	0
피부만 닿아도 아프다	0	0	1
쓰리다	0	7	0
화끈거리다	0	1	5

체성 통증		신경병증성 통증	
걸리다 끓어지는 듯하다 뼈개지는 듯하다 잡아뜰다 채적으로 후리는 듯하다	끓어지는 듯하다 쏘는 듯하다 지긋이 아프다 지끈지끈하다 뚝뚝거리다	찢어지는 듯하다 뚝지근하다	따갑다 뜨겁다 뻘치다 저리다 에이는 듯하다 쭈어뜰다 찌지는 듯하다 피부만 닿아도 아프다 칼로 도려내는 듯하다
답답하다 뻘근하다 부서지는 듯하다	둔하다 뜨끔뜨끔하다 바늘로 찌시는 듯하다	우리하다 쑤시다 찌르다	따끔거리다 뻘기다 시리다 애리다 얼얼하다 조이는 듯하다 찌릿찌릿하다 화끈거리다
내장성 통증			
거북하다 걸리다 뒤틀리다 뚝뚝하다 보글보글 끓는다 살살 아프다 쓰리다 매트리다 은근하게 아프다 잡아당기다 쭈어짜는 듯하다 짖누르다 터지는 듯하다 팽창하는 듯하다			

Fig. 2. 통증 어휘들.

하다, '조이는 듯하다', '찌릿찌릿하다', '화끈거리다'는 내장성 통증과 신경병증성 통증의 표현에 나타났다.

'우리하다', '쑤시다', '찌르다'는 세가지 범주 모두에 서 나타났고 이 중 '쑤시다'는 체성 통증, 내장성 통증, 신경병증성 통증 모두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 4. 표준형 성인 암성 통증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암성 통증 어휘 선정

표준형 성인 암성 통증평가 도구 개발 실무 위원회에서는 통증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통증의 강도 측정과 암성 통증의 성격에 따른 전형적인 통증 표현 어휘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즉 통증 평가도구 내 통증의 성격을 체성 통증, 내장성 통증,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나눈 후 실제 암환자들이 각 성격에 따라 흔히 표현하는 어휘를 기술해 줌으로서 통증 평가자가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통증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각 통증 군별로 빈도와 특이성, 그리고 군 안에서 의미의 중복을 피하여 각 통증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어휘를 각각 5개씩 선택하였는데, 체성 통증의 경우 '쑤시다', '걸리다', '찢어지는 듯하다', '뼈개지는 듯하다', '찌르다'가 선택되었고, 내장성 통증의 경우 '쑤시다', '뻘근하다', '쓰리다', '뒤틀리다', '쭈어짜는 듯하다'가 선택되었으며, 신경병성 통증의 경우 '화끈거리다', '저리다', '뻘치다',

'찌릿찌릿하다', '피부가 닿기만 해도 아프다'가 선정되었다.

## 고 찰

암 환자에서 적절한 통증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통증의 평가가 필수적이다. 적절한 통증의 평가를 위해선 통증의 강도 뿐만 아니라 통증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통증 평가 도구들 중 시각적 유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도표척도(Graphic Rating Scale: GRS), 숫자척도(Numerical Scale), 단순서술척도(Simple Descriptive Scale) 등은 모두 통증의 강도만을 측정하는 도구로 통증의 성격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Melzack과 Torgerson은 통증의 강도만으로 통증을 측정하는 것은 마치 양상, 색깔, 질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밝기만으로 시각세계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통증 경험의 질(quality)을 반영한 통증 묘사어휘를 다영역으로 분류하여 척도화 하였고[16], 이를 보완하여 Melzack은 총 20개군 78개의 어휘로 구성된 McGill Pain Questionnaire를 만들었다[1].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은옥 등이 McGill Pain Questionnaire를 근거로 한국적 통증표현양상을 3차에 걸

친 단계적 접근을 통하여 국어통증척도(Korean Pain Rating Scale)을 만들었다[12~14]. 이들은 포괄성, 정확성에 있어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실제 임상에서는 많은 시간이 소용되어 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통증의 강도 뿐만 아니라 통증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통증의 성격을 파악하는 접근법으로 환자들의 통증 표현 양상이 체성 통증, 내장성 통증, 신경병성 통증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75명의 암환자에서 총 183개(중복 포함)의 통증 표현 어휘가 추출되었고, 이들을 52 종류의 어휘로 표준화하였다. 그 결과 체성 통증의 경우 '쑤시다'가 14회로 가장 많이 표현되었고, '결리다', '끓어지는 듯하다', '답답하다', '뜨끔뜨끔하다', '묵지근하다', '빠근하다', '우리하다', '지긋이 아프다', '찢어지는 듯하다', '채찍으로 후리는 듯하다'가 각각 2회로 그 다음 순이었다. 내장성 통증은 '쑤시다'가 11회로 가장 많았고, '답답하다', '빠근하다'가 8회였으며, '쓰리다'가 7회, '애리다'가 5회, '뒤틀리다'가 4회, '둔하다', '묵직하다', '짓누르다'가 3회로 그 뒤를 이었다. 신경병증성 통증의 경우에는 '쑤시다'가 13회로 가장 많았고, '땡기다', '시리다', '화끈거리다'가 5회로 그 뒤를 이었으며, '따갑다'가 4회, '저리다', '찌르다'가 3회로 그 뒤를 이었다. '결리다'를 포함한 10개의 어휘는 체성 통증에서만 나타났으며, '거북하다'를 포함한 14개의 어휘는 내장성 통증에서만 나타났고, '따갑다'를 포함한 9개의 어휘는 신경병증성 통증에서만 나타났다. '답답하다'를 포함한 16개의 어휘는 두 가지 통증 범주에서 표현되었고, '우리하다', '쑤시다', '찌르다'는 세 가지 통증 범주 모두에서 표현되었다.

이렇듯 두 가지 이상의 통증 범주에서 표현되어진 어휘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것은 어휘 자체가 두 가지 이상의 통증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

고, 조사자가 통증 범주를 분류할 때 나타나는 오류 일 수도 있겠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 167명을 대상으로 통증표현양상을 조사한 한 국내 연구에서는 총 63종류의 통증표현어휘를 비슷한 표현끼리 묶어 12개 군으로 만들어서 통증 성격에 따라 빈도를 조사하였는데[17], 체성 통증의 경우 '찌르는 듯한 아픔', '압박하는/부서지는 듯한 아픔', '도려내는/찢어지는/끓어지는 듯한 아픔'의 순이었고, 내장성 통증의 경우 '찌르는 듯한 아픔', '압박하는/부서지는 듯한 아픔', '은근한 아픔'의 순이었으며, 신경병증성 통증의 경우 '저리는 아픔', '찌르는 듯한 아픔', '도려내는/찢어지는/끓어지는 듯한 아픔'의 순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체성 통증, 내장성 통증의 경우 상위 빈도 두 개군이 같았으나 체성 통증의 경우 '도려내는/찢어지는/끓어지는 듯한 아픔'이 많았던 반면 내장성 통증의 경우 '은근한 아픔'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신경병증성 통증의 경우 '저리는 아픔'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끓어지는 듯하다'는 체성 통증에서, '은근하게 아프다', '살살 아프다'는 내장성 통증에서, '저리다'는 신경병증성 통증에서만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찌르는 듯한 아픔'군에 속한 어휘는 총 16개로 이 중 '쑤시다', '찌르듯'은 본 연구에서도 세 가지 범주에서 모두 나타났지만, '결리다'는 체성 통증에서, '따갑다'는 신경병증성 통증에서만 각각 나타났다. 이는 이 연구가 통증표현어휘를 12개군으로 묶다 보니 의미상 약간의 차이가 있는 어휘들도 하나의 군으로 묶여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이는 결국 통증어휘를 분석할 경우 분석의 용이함을 위해 어느 정도 비슷한 어휘끼리 묶을 수 있으나, 너무 단순화하여 소수의 그룹으로 묶을 경우 각 어휘간의 미묘한 차이들이 무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외국의 한 교과서[18]에서는 체성 통증을 'sharp', 'aching', 'throbbing', 'pressure-like' 라는 어



휘를, 내장성 통증은 'gnawing', 'cramping', 'aching', 'sharp', 'throbbing' 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체성 통증을 'aching', 'stabbing', 'throbbing', 'pressure' 라고 표현하고, 내장성 통증은 'gnawing', 'crampy', 'aching', 'sharp' 라고 표현하였으며, 신경병증성 통증은 'burning', 'tingling', 'shooting', 'lancinating' 이라고 표현한 통증 평가도구도 있다. [19]

국내의 암성통증 관리지침[10]에서는 체성 통증은 '피부, 근육, 뼈의 통증으로 찌른 듯한, 박동성, 혹은 압박감으로 표현'된다고 하였고, 내장성 통증은 '내부 장기의 통증으로 위치가 애매하며 갈아 먹는 듯한, 경련성 혹은 체성 통증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하였으며, '신경병증성 통증은 신경의 손상에 의한 통증으로 '화끈거리거나, '저린듯한', '쑤시는 듯한', 혹은 '욱씬거리'는 양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찌른 듯한', '쑤시는 듯한' 통증은 본 연구에서는 모든 통증 범주에서 다 나타났고, '화끈거리다'의 경우 신경병증성 통증 뿐 아니라 내장성 통증의 범주에서도 표현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환자들이 사용하는 어휘에 내재되어 있는 통증의 성격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조사자가 통증의 범주를 잘못 선택하여 나타나는 오류일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에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볼 때 '박동성', '압박감', '경련성' 과 같은 단어는 실제 환자들이 사용하는 어휘와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암성 통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조사하여서 의료진들의 이해를 더욱 도울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조사자가 통증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환자와 면담 후 통증어휘를 분류하였다고는 하나 통증 성격의 분류 시 조사자의 치우침(bias)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둘째, 다 기관 연구였지만 환자의 특성상 대상자 수가 적었다는 점, 셋째, 지역적인 어휘 표현의 차이로 표준화하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지만 치우침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통증 표현 어휘를 조사하고, 통증의 성격에 따른 어휘를 분석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McGill Pain Questionnaire처럼 통증어휘를 통한 현재 통증 강도(PPI)를 점수화 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는 통증어휘를 통한 통증 강도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광범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 요 약

**배 경:** 통증은 암환자가 겪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로, 정확한 통증 평가는 적절한 통증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다. 한편 통증은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환자의 표현은 통증 상태의 가장 믿을만한 지표이다. 이에 실제 암 환자의 통증 표현 어휘를 조사하고, 통증의 성격에 따른 통증어휘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증평가 및 조절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 법:** 2002년 9월부터 11월 사이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6개 대학병원에서 암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자가 직접 면담하여 환자가 표현하는 통증 어휘를 조사하였고, 통증의 성격에 따른 어휘를 분류하였다. 수집된 통증 어휘를 7차례의 자문회의와 실무회의를 거쳐 정리하였고, 표준형 성인 암성 통증평가 도구를 위해 통증의 성격 범주당 각 5개의 통증 어휘를 선정하였다.

**결 과:** 183개(중복포함)의 통증 표현 어휘가 추출되었고, 52종류의 어휘로 표준화되었다. 체성 통증, 내장성 통증, 신경병증성 통증 모두에서 '쑤시다'가 가장 빈도가 높았고, '결리다', '꿰어지는 듯하다', '지긋이 아프다', '채찍으로 후리는 듯하다'는 체성 통증에서만 나타나면서 빈도가 높은 표현이었고, '쓰리다', '뒤틀리다', '묵직하다', '짓누르다'는 내장성 통증에서, '따갑다', '저리다'는 신경병증성 통증에서만 나타나면서 빈도가 높았다.

**결론**: 통증의 성격을 대표하는 어휘를 각각 5개씩 선택하였는데, 체성 통증의 경우 '쑤시다', '결리다', '찢어지는 듯하다', '뼈개지는 듯하다', '찌르다'가, 내장성 통증의 경우 '쑤시다', '뼈근하다', '쓰리다', '뒤틀리다', '꺾어짜는 듯하다'가, 신경병성 통증의 경우 '화끈거리다', '저리다', '뻘치다', '찌릿찌릿하다', '피부가 닿기만해도 아프다'가 선정되었다.

### 감사의 글

연세대 마취통증학과 윤덕미 교수님, 고려대 국문학과 홍종선교수님, 서울대 간호대학 이은옥교수님,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과 박명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참고 문헌

- 1) Melzack R. The McGill Pain Questionnaire: Major properties and scoring methods. *Pain* 1975;1: 277-99.
- 2) Levy MH. Pharmacologic treatment of cancer pain. *N Engl J Med* 1996;335:1124-32.
- 3) Levy MH. Pain management in advanced cancer. *Seminars in Oncology* 1985;12:394-410.
- 4) Cleeland CS. The impact of pain on the patient with cancer. *Cancer* 1984;54:2635-41.
- 5) Ventafridda V, DeConno F, Ripamonti C, Gamba A, Tamburini M. Quality of life assessment during a palliative care program. *Ann Oncol* 1990;1:415-20.
- 6) Bonica J. Treatment of cancer pain: current status and future needs. *Advances in Pain Research and Therapy. Proceeding of the Fourth World Congress on pain.* Raven press, New York 1985;9:589-616.
- 7) 최윤선, 홍명호. 임종진료에 관한 연구: 말기 암환자의 통증 조절. *가정의학회지* 1995;16:269-85.
- 8) Twycross R. General categories of pain. In: Twycross R (ed). *Pain Relief in advanced cancer.* Churchill Livingstone, New York, 1994;55-78.
- 9) Payne R, Gonzales G. Pathophysiology of pain in cancer and other terminal disease. In: Doyle D, Hanks GW, MacDonald N (eds). *Oxford textbook of palliative medicin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93;140-8.
- 10) 한국호스피스,완화의학연구회,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암환자의 통증평가. In: *암성통증관리지침.* 서울, 2001;11-22.
- 11) Wright SM. The use of therapeutic touch in the management of pain.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n* 1987;22:705-14.
- 12) 이은옥, 송미순. 동통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 통증어휘별 강도순위의 유의도 및 신뢰도 검사. *대한간호학회지* 1983;13:106-18.
- 13) 이은옥, 윤순영, 송미순. 통증어휘를 이용한 통증비율척도의 개발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984;14:93-111.
- 14) 이은옥, 이숙희. 정상성인에서의 한국어휘를 이용한 통증척도의 타당도 조사. *대한간호학회지* 1986; 16:13-28.
- 15) Dudgeon D, Raubertas RF, Rosenthal SN. The short-form McGill Pain questionnaire in chronic cancer pain. *J Pain Symptom Manage* 1993;8: 191-5.
- 16) Melzack R, Torgerson WS. On the language of pain. *Anesthesiology* 1971;34:50-9.
- 17) 박명희, 백선희, 김남초, 송혜양.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의 암성 통증 표현양상. *임상간호연구* 2002;8:147-61.
- 18) Nathan I. Cherny, Russell K, Portenoy. Cancer pain: principles of assessment and syndromes. In: Patrick D. wall, Ronald Melzack. *Textbook of Pain.* 3rd ed. Churchill Livingstone, London, 1994;787-823.
- 19) The Safe Conduct Team of the Safe Conduct Project Ireland Cancer Center & Hospice of the Western Reserve. *Reinterpreting Comprehensive Cancer Care. Innovations in End-of-Life Care* July-August 2002;4.